

효과적인 계분처리

양질의 유기질 비료 생산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따라야...

우리 산란업계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대외적으로 심각한 어려움과 고통에 직면해 있다. 계란가격은 과잉생산과 소비부진 그리고 방송매체 등의 편파보도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하여 소비부진까지도 불러오고 있으며 국제 곡물가의 폭등으로 사료값의 인상으로 인한 경영 압박은 우리 양계업자들의 생존권마저도 위협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신이 없다.

더군다나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 그리고 계분처리 문제는 우리 농가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계분배합 부속제값의 폭등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에 크나큰 시련이 되고 있다.

실질적인 농가 해결책 절실

요즈음 농림부나 지방자치 행정부서 등에



오 세 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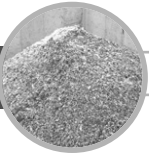
경기도산란계지부연합회 회장

서는 자주 FTA에 관한 설명회를 워크샵이나 심포지엄이라 하여 축산인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그러나 우리 축산인들의 피부에 와 닿은 정책은 찾아 볼 길이 없다. 연일 단골 메뉴로 명품이다 브랜드다 가는 곳 마다 똑같은 주제다. FTA로 인한 농가 달래기도 좋지만 실제적인 농가를 돕겠다는 구체성이 없이 매일 맞춤형이니 브랜드니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한다. 이러다가는 다 명품되고 전부 브랜드 되면 그때는 특명품, 왕명품까지 나올 판인지 모르겠다. 실제적인 축산 농가가 바라는 정책을 실현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부산물 재활용 촉진과 과감한 국가 보조 필요

요즘 글로벌이니 세계화니 국제 경쟁력이



니 하는데 지금 계분으로 만든 비료를 일본서 수입을 해오고 있다고 한다. 일부 농협에서 일본 계분 유기질 비료를 판매한다고 한다. 계분 유기질 비료까지 수입을 하다니 참으로 안타깝다. FTA로 어려울 때 과감히 농축산물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국가 보조산업으로 과감히 유기질 비료를 생산을 할 때 축산농가도 살고 농민들도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은 비료법이라는 것에 묶여 비료업자들만 배를 불리고 있다. 2만수를 하든 10만수를 하든 우리 농민들이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 자유롭게 포장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얼마전 엔디에프 등 화학제가 섞인 합판가루로 비료를 만들어 판 비료업자들 이야기가 매스컴을 통하여 나온 적이 있다.

이것은 바로 비료법 때문에 특정업자들이 농민을 생각하지 않은 비료를 생산했기 때문이다. 지금 산란농가에서 배설하는 계분에 양은 우리나라에 현재 매일 약 7000t씩 배설하고 있다. 이것을 유기질 비료화 할 경우 연 약 300만t의 유기질 비료로 생산할 수 있다. 이것을 시중에 유통되는 유기질 비료가격으로 환산하면 연 300억원(포대당 2,000원)이 된다.

이것은 바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내지 수익이 된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뒷받침 될 때 농가 수익이 되고 FTA를 다소나마 이겨내는 것이다.



비료법 개선책 요구

무창화되고 자동화된 농장은 부속제 값이 적게 들어가지만 우리 산란업의 70%인 유창계사의 부속제 값은 5만수당 연 5,000만원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축산농가를 더욱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지금 보통 농가에서는 비료시설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고 비료법 때문에 부속제를 사다가 배합을 하면 업자들이 수거해다가 발효를 시켜서 업자들이 판매를 하고 있기에 농가에서는 비용만 지출하여 수익은 없고 경비만 지출한다. 하루 빨리 농수산부나 지자체에서는 비료법을 고쳐서 농민들이 자가

배합, 우수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하고 보조금을 유기질 생산농가에 주고 농민에게 싸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책의 뒷받침이 농가 회생의 길

지금 우리 농가에서는 계분이 생산이 되면 부속제를 섞어서 로타리 형식으로 공기를 주입 발효 시키는 방법이 있고 콤포스트 형식으로 된 발효기도 출시되고 있으며 원형 발효기도 일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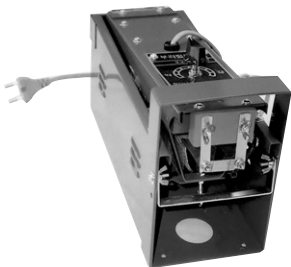
얼마전 일본에 있는 농장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부속제를 사용하지 않는 발효제만 배합 계분을 완전 숙성시켜서

시중에 비싼 값에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기술개발을 하고 지원을 하여 준다면 얼마든지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비료 만드는 방법은 정부에서 기술지원과 더불어 지원하여 주고 비료법을 하루 빨리 만들어 양계업을 하는 농가는 누구든지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 시중과 농민들에게 판매도 하고 더 나아가 수출도 할 수 있게끔 지원하여 준다면 우리 농민들도 친환경 농업을 하여 토양의 질도 높이고 웰빙 시대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하여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소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된다. **양계**

부리절단기 ♣ 님플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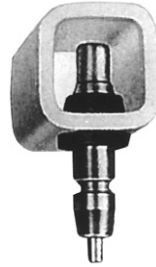
최고의 품질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부리절단기(국산품)



※ 사용중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 드립니다.

님플



수입품에 비해 가격기 저렴하다

보령산업

전 화 : (02)461-7887(주·아)

휴대폰 : 017 - 743 - 6887